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안전혁신과 TEL.051)888.2891

www.busan.go.kr

시민안전 행동요령 —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다담다

부산광역시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412-10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多담다
시민안전
행동요령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비상시 행동요령
유익한 안전정보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시설
안전사고에서부터 태풍·지진 등의 자연재난, 원자력 안전까지
각종 재난유형별 안전행동요령과 꼭 알아야 할 재난 상식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평소 이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시고 꼭 읽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지역사회에서 하는 각종
재난안전훈련에 참가하세요!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01**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 03**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안전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04**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05**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되는 장소



시민안전 행동요령

생활 안전
교통 안전
자연재난 안전
사회기반체계 안전
범죄 안전
보건 안전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생활에 유익한 안전정보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CONTENTS



생활 안전

- 화재안전 _ 12
- 전기안전 _ 18
- 가스안전 _ 20
- 작업안전(산업현장) _ 22
- 승강기 안전 _ 23
- 축제 · 행사장 안전 _ 24
- 등산안전 _ 25
- 물놀이안전 _ 2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_ 30
- 캠핑안전 _ 32
- 낙상예방 _ 37

자연재난 안전

- 미세먼지 _ 54
- 태풍 _ 59
- 호우 _ 62
- 지진 _ 65
- 해일 _ 68
- 폭염 _ 70
- 대설 _ 72
- 한파 _ 75
- 산불 _ 77

사회기반체계 안전

- 원자력 안전 _ 82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_ 91

교통 안전

- 교통법규 안전 _ 40
- 보행안전 _ 42
- 교통사고 안전 _ 43
- 도시철도 안전 _ 45
- 선박안전 _ 49

범죄 안전

- 학교폭력 예방 _ 94
- 성폭력 예방 _ 96
- 학대 예방 _ 97

보건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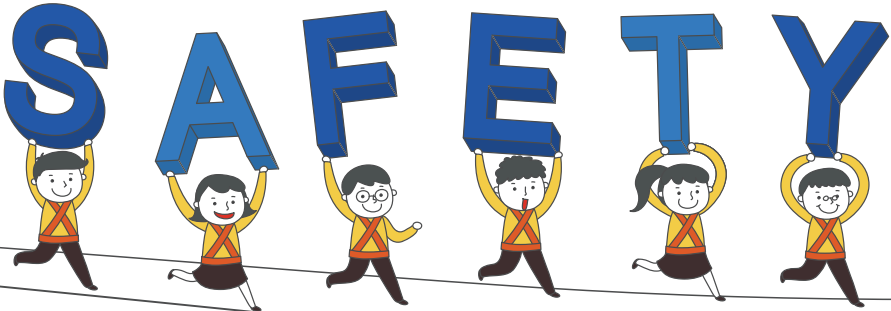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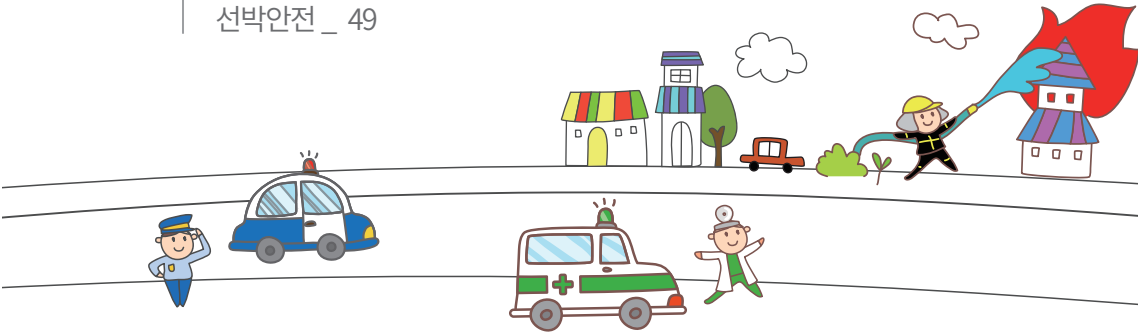
- 불량식품 안전관리 _ 104
- 감염병 예방 _ 106
- 가축전염병 예방 _ 108
- 자살예방 _ 110
-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_ 111
- 심폐소생술 _ 113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 전쟁발발전 _ 120
- 전쟁발발시 _ 124

생활에 유익한 안전정보

- 생활에 유익한 안전정보 _ 130
- 안전체험시설 _ 132
- 안전점검표 _ 133



생활 안전

화재안전	12
전기안전	18
가스안전	20
작업 안전(산업현장)	22
승강기(에스컬레이터)안전	23
축제·행사장관람안전	24
등산안전	25
물놀이 안전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30
캠핑안전	32
낙상예방	37



위급 상황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합시다!



화재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둡니다.
- ✓ 비상탈출구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화재예방

- 불장난을 하지 맙시다.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 둡니다.
- 연기경보기를 각 가정의 방에 설치하고, 잘 작동되는지 확인 합니다.
-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Tip!

행겨야 할 내용

-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나는 장소 사전약속
- 대피할 때 가져가야 할 중요물건 목록작성과 행길 사람 선정
-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연락해야 할 대상 선정
- 문틈을 막아야 할 경우 청테이프 또는 수건
-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 등 대피에 사용할 물건
- 긴급 대피한 경우 만날 장소와 비상연락망
- 옥상출입문은 항상 열려있는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방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화재대피 화재경보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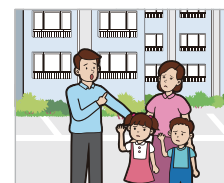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 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할 수 있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화재대피 불을 발견했을 때

①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 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②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의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 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한다.



자세를 낮춘다.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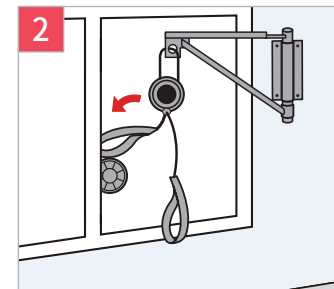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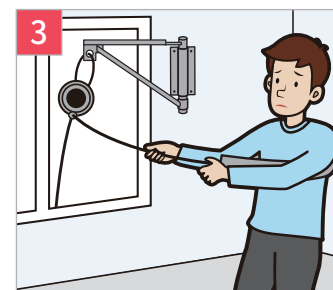
완강기 사용법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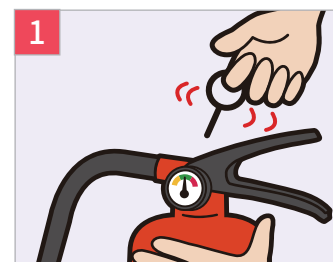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화재진압 소화기 사용법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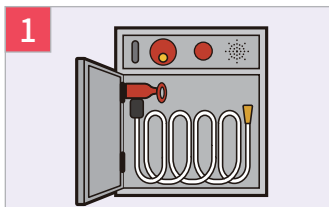
손잡이를 꼭 움켜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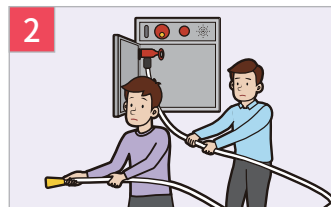
분말을 골고루 쏜다.

※ 실내에서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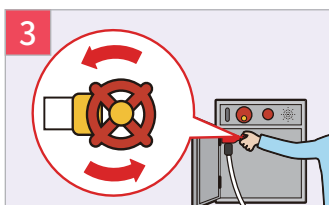
화재진압 소화전 사용법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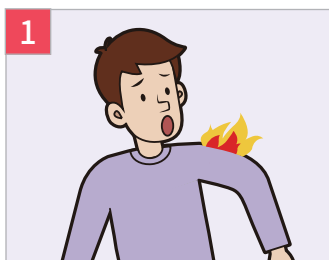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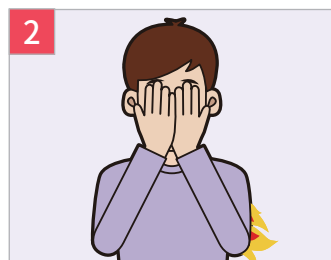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 가며 불을 끕니다.

화재진압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하던 일을 멈춘다.



눈과 코와 입을 보호한다.



바닥에 엎드린다.



불이 꺼지도록 뒹군다.

※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19 신고절차



① 일반전화

- ① 수화기를 들어 발신을 확인
- ② 순서대로 119 숫자 누르기
- ③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② 휴대전화

- ① 119 숫자 누르기
- ②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www.119.go.kr



신고하기 >

③ 인터넷

- ① 인터넷 접속
- ②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 ③ 성명 등 필수인적사항 기록
- ④ 사고개요 정확히 기록
- ⑤ 등록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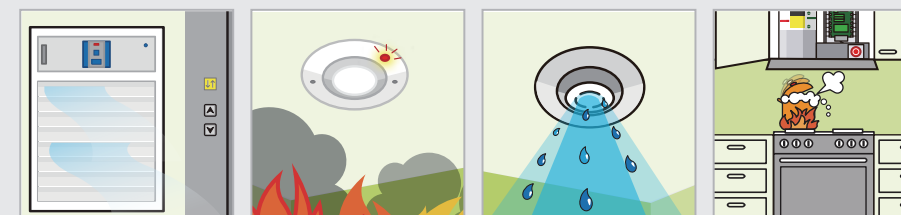


④ 공중전화

- ① 수화기 들기
- ② 긴급버튼(적색) 누르기
- ③ 119 숫자 누르기
- ④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Tip!

나를 지켜주고 있는 소방시설



제연설비,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주방용 자동소화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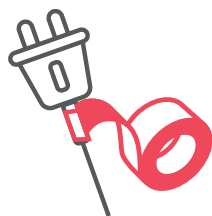
전기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 ☑ 전선은 중간에 임의로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전기설비 고장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신고하여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사고 예방

-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전류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전원을 차단 후 절연테이프로 노출된 부분을 감아서(테이핑) 사용합니다.
-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 수동 개폐기(차단기)의 퓨즈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정격 퓨즈를 사용합니다.
- 누전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테스트합니다.
- 전선은 중간에 임의로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전기설비 고장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신고하여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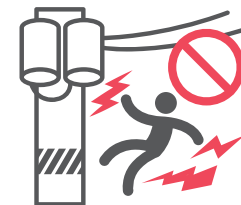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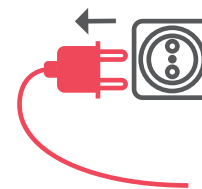
폭우 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 폭우로 인한 주택침수가 예상 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전 차단기를 차단하여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 이때 발이 물에 잠겨 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차단기 손잡이를 마른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끼야 합니다.



정전 발생시 조치사항

- 정전이 되면 주변을 확인하여 일부만 정전인지, 전체 정전인지 확인 후 잠시 기다립니다.
- TV, 전기스토브, 전자레인지 등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전기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가전제품들이 동시에 켜지면 전기회로에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침착하게 양초나 랜턴을 켜고 건전지용 라디오를 켜 후 뉴스나 방송을 경청합니다.
- 한 집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었는지, 안전기(두꺼비집)가 열렸는지 확인 후 스위치와 플러그를 모두 끄거나 빼고 다시 작동해 봅니다.
- 이때 누전일 경우에는 다시 정전이 되며 스위치와 플러그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불량개소를 확인합니다.
- 일부 스위치나 플러그(또는 콘센트)가 불량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양호한 것은 사용을 합니다.
- 직접 전기를 고치기 위해 전주에 올라 간다거나 전기설비를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Tip!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 1588-750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주거용설비(주택)에 한하여 무료실시
- 전기사용중 돌발적인 고장·정전에 대한 24시간 즉시출동·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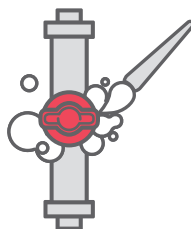
가스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가스레인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버너의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 가스불을 켤 때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합니다.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가스 밸브가 열리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평소 점검방법

- 비누나 주방용 세제 등으로 거품을 내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가스레인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버너의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취침·외출 전에는 반드시 퓨즈 콕 및 중간밸브가 꼭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이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주의를 줍니다.



가스 사용하기 전

-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우선 확인합니다.
- LPG는 바닥으로부터, 도시가스(LNG)는 천정으로부터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 미리 창문을 열어줌으로써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실내를 환기 시켜야 합니다.
-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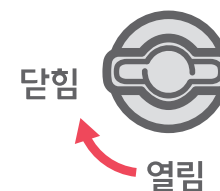


가스 사용 중

- 가스불을 켤 때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합니다.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가스 밸브가 열리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를 조절합니다. 불완전 연소 시 노란 불꽃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그을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주 확인합니다.

가스 사용 후

- 가스 사용 후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꼭 '닫힘'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시계방향으로 조작)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용기 밸브도 잠그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도시가스는 메인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 가스레인은 자주 이동시키지 마시고 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작업 안전 (산업현장)

! 꼭 알아둡시다

-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등이 갖춰진 안전한 비계를 설치합니다.
- ✓ 지게차 운행 시유자격자 전담운전, 전후방 시야확보,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합니다.
-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전 위험교육, 급기팬 · 가스측정기 사용,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합니다.

안전 · 보건교육 실시

- 작업 전에 작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인지 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 착용

- 기계·설비 등 유해·위험요인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



안전 작업절차 지키기

- 정비, 보수 등의 비계획작업 또는 잠재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작업절차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유도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안전 보건표지 부착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승강기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승강기에 갇히더라도 승강기는 추락하거나 질식의 우려가 없습니다.
- ✓ 비상통화장치(인터폰)는 외부 관리자와 승강기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므로 침착히 통화 연결을 기다리고, 휴대전화로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나 119 구조대로 직접 알립니다.
- ✓ 강제로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 이용수칙

-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 승강기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강기 갇힘 시 행동요령

- 승강기에 갇히더라도 승강기는 추락하거나 질식의 우려가 없습니다.
- 비상통화장치(인터폰)는 외부 관리자와 승강기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므로 침착히 통화 연결을 기다리고, 휴대전화로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나 119 구조대로 직접 알립니다.
- 강제로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수칙

- 황색 안전선 안에 발을 놓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 핸드레일을 반드시 잡고 탑니다.
-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습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손을 잡고 탑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 행동요령

-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 119, 관리주체 등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축제 및 행사장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축제·행사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는 관람객에게 축제·행사 시작전에 위급 상황 발생때 대처방법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관람객은 이를 숙지하여 위급상황 발생때 협조 하여야 합니다.
- ✓ 대피할때는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 ✓ 폭죽 폭음탄 등 위험물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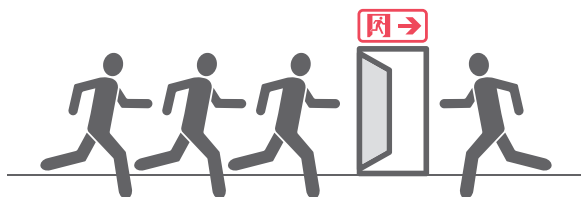
입·퇴장 할 때는

- 관람객은 진·출입 때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줄을 서서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퇴장합니다.
- 축제·행사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는 관람객에게 축제·행사 시작 전에 위급 상황 발생 때 대처방법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관람객은 이를 숙지하여 위급 상황 발생때 협조 하여야 합니다.



비상사태 발생 때는

- 실내 행사장의 경우 갑자기 정전되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 유도등을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 대피 시 119구급대원 등 안전 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질서있게 이동 합니다.
-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등산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출발 전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 ✓ 맨손체조나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부위와 근육을 충분히 풀어 줍니다.
- ✓ 출입금지구역 또는 지정된 등산로 밖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산준비

- 험한 산이 아니더라도 관절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등산화를 신습니다.
- 방풍·방수가 잘 되는 등산복을 착용하고 체온유지를 위해 예비용 겹옷을 챙깁니다.
- 소금과 열량이 높은 초콜릿·양갱·육포·사탕 등 비상식량을 챙깁니다.
- 전등·우의·물통·휴대전화(배터리)·나침반·지도·구급 약품 등을 미리 준비 합니다.
-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하고, 될 수 있으면 단독산행은 피합니다.
- 출발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 출발하기 전에 발목과 무릎을 간단하게 풀어 줍니다.(맨손체조나 스트레칭을 하고, 평지를 5~10분 정도 걷는것이 좋습니다.)



등산 중

- 산에 오를 때는 경사도에 따라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여서 걷고,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디뎌야 합니다.
- 산행 중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셋길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정상에 오른 후 또는 등산 후에는 정리운동을 합니다.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계절별 예방요령 봄(3~5월)

- 초봄에는 잔설이 녹지 않아 미끄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젠을 준비합니다.
- 봄은 기후 변화가 심하므로, 바람막이(윈드재킷) 옷과 보온의류를 준비합니다.
- 봄에는 바위 사이의 흙과 수분이 녹고 얼기를 반복해 결속력이 약해져 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벽 등반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합니다.



계절별 예방요령 여름(6~8월)

- 땀을 발산하는 등산복을 착용합니다.(잡목·해충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위해 긴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합니다.)
- 우의를 준비하고, 등산화는 방수약이나 구두약·양초 등을 충분히 발라둡니다.
- 수분 공급을 늘립니다.
- 계곡 물이 불어나 물살이 급해진 경우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계곡 물은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상류 쪽으로 올라가 물살이 약하고 폭이 좁고 얇은 곳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절별 예방요령 가을(9~11월)

- 반드시 바람막이(윈드재킷) 옷과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 낙엽이 쌓이면 길을 잃기 쉬우니, 지도를 지참합니다. 낮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지므로, 오후 5시 이전에 하산합니다. (당일 산행이라도 반드시 손전등을 준비합니다.)



계절별 예방요령 겨울(12~2월)

-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털옷 등 보온의류를 준비합니다.
- 설맹의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등산용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손과 발이 땀이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합니다.
- 겨울은 빨리 어두워지므로, 오후 3시 이전에 하산합니다.



등산사고 발생 시

① 조난됐을 때

- 산에서 길을 잃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는 곳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119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큰소리·피리·물건 두드리기, 흰 형광을 들거나 높이걸기, 등화점멸방법 등을 이용해 구조를 요청합니다.



② 등산 사고 응급처치 요령

- 산행 중 부상자 발생 시, 119로 신고하고, 전화 거는 사람의 전화 번호와 이름을 알려줍니다.
- 부상자를 구조대에 인계할 때까지 이동해도 좋은 증세와 안정을 요하는 증세 등을 가려서 신중하게 처치를 합니다.
-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부상자에게 대화를 유도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보온조치를 해줍니다.



물놀이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위험에 처하면 손을 흔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음주 후에는 수영하지 않습니다.
- ☑ 자녀가 물에 있을 때는 절대 눈을 떼지 않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 물놀이 시작 전 안전한 구역인지 확인 후 안전표지판을 숙지합니다.
- 준비운동은 필수,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습니다.
-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밟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흥내를 내지 않습니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 후에는 수영하지 않습니다.
-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 구명동의를 착용합니다.



사고예방

- 머리는 언제나 수면상에 내밀고 있어야 합니다.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멈추고 있으면 자연히 떠오릅니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 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 수영 중에는 일어섰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 자녀가 물에 있을 때는 절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사고별 대처요령

①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

-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당황하여 벗어 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남) 경련 부위를 주무릅니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합니다.

② 물에 빠졌을 때

-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옵니다.
-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옵니다.
- 위험에 처하면 손을 흔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 꼭 알아둬시다

-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배치(신규,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관리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원인

-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과 조정능력이 부족합니다.
- 놀이터에서 기구에 오르다가 빠지거나 추락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기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 놀이터에서 차도로 나가 차에 부딪히기도 하며 많은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기구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지거나 고정된 물체와 충돌하기도 하며 특히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터 안전수칙

1 미끄럼틀

- 앞사람을 밀지 않고, 옆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습니다.
-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2 시소

- 반동으로 튕겨 나갈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탑니다.
- 시소를 탄 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뛰지 않습니다.
- 내릴 때는 같이 타는 친구에게 미리 말하고 조심하여 내립니다.
- 시소 밑에 발을 둔 채로 내리지 않습니다.

놀이터 안전수칙



3 그네

- 줄을 양손으로 잡고 타며 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 내리지 않습니다.
- 사슬을 꼬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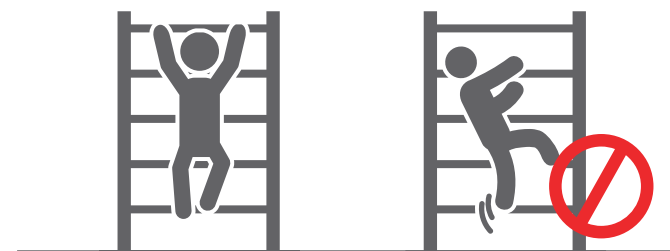
4 철봉

- 자신의 키보다 너무 높은 철봉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 거꾸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 내려올 때는 발에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5 오르기 기구

- 가로대를 양손으로 잡고 올라갑니다.
- 내려올 때는 아래를 잘 살핍니다.
-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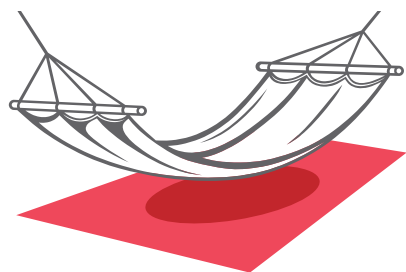
캠핑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습니다.
- ✓ 숲속에서는 폭죽놀이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삼가도록 합니다.
- ✓ 긴급상황 발생 시 캠핑장 내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를 사전에 숙지합니다.

캠핑장 생활안전

- 텐트는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하고,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칩니다.
-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습니다.
- 해먹 설치 시 땅바닥에는 추락을 대비해 두꺼운 돛자리 등을 깔아둡니다.



- 숲속에서는 폭죽놀이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삼가도록 합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캠핑장 내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를 사전에 숙지합니다.
-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줍니다.
- 야영 중(특히, 장마철)에 물이 밀려들 때는 신속히 대피합니다.
- 집중호우 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교량)는 건너지 않습니다.
-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로프), 구급약품 등을 준비합니다.

Tip!

텐트, 어디에 쳐야할까?



좋아요

- 평평한 곳
- 물을 구하기 쉬운 곳
- 암벽이나 언덕이 없는 곳



나빠요

- 계곡 근처
- 침탑이나 큰 나무아래
- 전깃줄, 철계단 쇠줄 근처

전기제품 사용할 때

-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장판의 사용을 삼가고, 개인 침낭을 사용합니다.
- 과열을 막기 위해 릴선은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로 사용합니다.

난방기구 사용할 때

- 난로를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하고, 텐트 내부를 수시로 환기시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합니다.
- 취침 시는 난로와 화롯대 등을 끄고 텐트 밖으로 빼놓습니다.
- 휴대용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을 숙지하고, 없을 경우 페트병에 물을 받아 비상시 사용합니다.

휴대용 가스제품 사용할 때

- 사용 전에 연료 누출이 있는지 점검하고, 가급적 바깥에서 사용합니다.
- 취침 시 부탄가스통을 제품과 분리해서 가스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부탄가스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다 쓴 용기(캔)는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구멍을 내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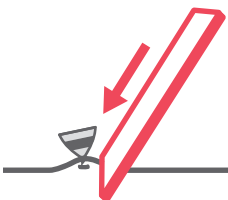
휴대용 가스제품 사용할 때

- 사용 중에 가스가 누출되면 신속히 연결 레버를 위로 올려 용기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 사용하는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으면 화기가 가스용기를 가열하게 되어 폭발의 원인이 되므로 삼발이 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밀폐된 텐트 안이나 좁은 방에서는 질식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하며, 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산소부족과 일산화탄소의 발생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질식될 수 있습니다.
- 휴대용 가스레인지 2개 이상 연결하지 않습니다.
- 알루미늄 호일 사용을 자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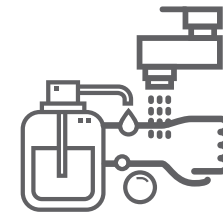
야외활동 중 응급처치 벌에 쏘였을 경우

-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합니다.
- 쏘인 부위 벌침이 남아 있으면 바늘이나 칼 등으로 제거, 없으면 신용카드로 긁어서 제거 후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 (단, 무리하게 제거 금지)
- 피부에 벌침이 남아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합니다. 집게 등으로 제거할 때, 침에 남은 독을 짜서 밀어넣게 될 수 있습니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대줍니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 ① 흡기 시 그렇거리는 호흡음이 있고 입술이 심하게 부어있는 경우, 기도 폐쇄가 임박함을 의미하므로 즉시 꽉 조이는 옷은 풀고 상체를 들어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
 - ② 만약 토하거나 입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 ③ 구급차 도착 전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야외활동 중 응급처치 뱀에 물렸을 경우

-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합니다.
-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여 의료기관 으로 이송합니다. (민간요법 지양)
-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팔 또는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 시킵니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
-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 줍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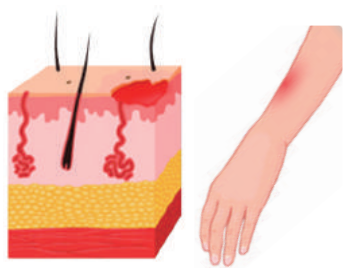
① 뱀에 물린 지 15분 이내인 경우 처치방법

-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습니다.
-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꽉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1시간 이상)에는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독을 빨아낼 수 있습니다. 단 입에 상처가 있거나 치아가 결손난 사람은 절대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는 안 됩니다.

② 절대 해서는 안 될 처치

-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않습니다. 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않습니다.
-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습니다.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 부위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야외활동 중 응급처치 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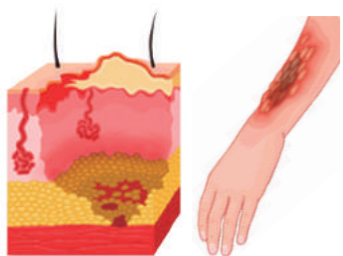
① 1도 화상

- 피부가 빨개지고 물집이 없는 상태 (표피층만 손상)



② 2도 화상

- 물집이 생긴 상태 (표피 전 층과 진피의 상당부분이 손상)



③ 3도 화상

- 피부가 하얗고 손상부위를 눌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진피 전 층과 피하조직까지 손상)

- 화상 부위를 신속하게 흐르는 찬물에 적시거나 담급니다.
-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옷 등은 제거하지 말고 더러운 물건이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하며 화상 부위가 적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냉각시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흐르는 찬물 속에 최소 10분 동안 담금)
- 소독거즈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부위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화상 부위에 붙어 있는 물질들을 떼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낙상 예방

! 꼭 알아둡시다

- ☑ 매일 하지근력운동을 합니다.
- ☑ 매일 칼슘과 단백질로 균형잡힌 식사를 합니다.
- ☑ 집안밖에 넘어질 만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듭니다.
- ☑ 외출시에는 걷기에 집중하고 핸드폰을 하지 맙시다.

생활 속 낙상예방 수칙

- 운동은 낙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규칙적으로 근력강화 운동을 합니다.
- 집안의 낙상위험요소를 제거합니다.
 - 욕조에 미끄럼 방수액을 도포하는 등 욕조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합니다.
 - 실내 조명은 밝게 유지합니다.
 - 집안의 통로는 그릇이나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정리해둡니다.
 -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높은 선반에 두지 말고 낮은 선반에 보관합니다.
 - 계단이 있는 곳에는 양끝에 전등을 달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는 자동으로 켜지는 등을 설치합니다.
 - 전기줄 등이 노출되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정리합니다.
 - 바닥 여기저기에 있는 방석이나 카펫을 치웁니다.
-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비타민(채소, 과일), 칼슘, 단백질(우유, 치즈, 고기, 생선, 계란, 콩)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 복장
 - 굽이 낮고 바닥이 넓은 신발을 착용합니다.
 - 미끄럼방지 양말과 신발을 신습니다.





반드시 차가 멈춘걸
확인 후 건넌다!



교통 안전

교통법규 안전	40
보행안전	42
교통사고 안전	43
도시철도 안전	45
선박안전	49



교통법규 안전

! 꼭 알아둬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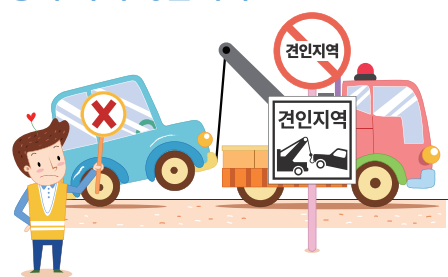
- ☑️ 안전운전의 기본은 신호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 ☑️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큰 인명사고를 야기합니다. 규정 속도로 운전합니다.
-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 6가지

①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② 불법 주정차 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 6가지

④ 터널안에서 차로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⑤ 안전운전의 기본은 신호 지키기입니다.



⑥ 자전거는 인도에서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 자전거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전거 안전 5대 수칙

- ① 안전장비 착용하기
- ② 자전거 점검하기
- ③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 ④ 야간 전조등과 후미등 부착·밝은 옷 착용하기
- ⑤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 금지하기



보행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횡단 전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살피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 횡단 중에도 접근 하는 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뛰게 되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운전자도 보행자의 발견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걸어서 보행합니다.

무단횡단 절대금지 안전 보행하기

- 반드시 녹색불을 확인하고,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건너갑니다.
- 횡단 보도의 우측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들어 건너갑니다.
- 야간 보행 중에는 눈에 잘 띄게 밝은색 옷을 입습니다.
- 비 오는 날에는 투명 우산이 좋으며,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우산을 수직으로 들어 사용합니다.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차를 보며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차량 사이로 건지 말고, 주위가 잘 보이는 쪽으로 걷습니다.



교통사고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길을 걸을 때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도로 걸어야 할 때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합니다.
- ☑ 골목길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있으므로 멈춰 서서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골목길 교통사고

- 멈추어 있는 차 사이에서 뛰어나올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이 있는 곳에선 절대 뛰지 않습니다.
- 반드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건넙니다.
- 어린이는 차량이 다니는 골목길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 부근 교통사고

-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내리고 타야 합니다.
- 버스 앞뒤로 횡단할 경우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 버스 문에 옷이나 물건이 끼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주·정차 된 차량 인근사고

- 멈춘 자동차가 뒤로 움직일 수 있으니 어린이는 절대 차 뒤나 밑에서 놀지 않습니다.
- 운전자는 차량 탑승 전 차 뒤에서 노는 어린이 등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는 차 밑에 물건이 들어가면 운전자나 주변 어른들에게 부탁하여 꺼내도록 합니다.



회전차량 교통사고

- 자동차가 회전하는 길모퉁이는 사고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보도로 다니도록 합니다.

보호장구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

- 어린이는 자동차를 탈 때 앞좌석에 앉지 않습니다.
- 만6세 미만 유아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안전사고

-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타야 합니다.
- 길모퉁이를 돌때에는 우선 멈춘 후 차와 사람이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대응방법

- 사진촬영 또는 사고차량 표시 후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합니다.
- 119 또는 112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합니다.
- 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환자 상태를 말하고, 구조대의 지시에 따릅니다.
- 차 밖 부상자에게 접근 시 또는 구호 시 다른 차량에 유의합니다.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나와 대피합니다.



도시철도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사고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주위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 ☑ 화재 시 객실 양쪽 끝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합니다.
- ☑ 기관사 또는 역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긴급상황 시 신고요령

비상통화장치 위치 및 사용법



1호선 비상통화장치 위치



2호선 비상통화장치 위치



3호선 비상통화장치 위치



4호선 비상통화장치 위치

- 제일 먼저 기관사(종합관제소) 및 관계기관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객실 양쪽 끝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 뚜껑을 열고 마이크를 꺼내 기관사와 통화합니다.
(※ 1호선 신형 전동차는 4호선과 동일합니다.)

4호선

비상통화장치 버튼을 1번만 누른 후 통화합니다.

-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긴급상황 시 초기 행동요령

- 사고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주위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 화재 시 객실 양쪽 끝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 합니다.
- 기관사 또는 역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

전동차 출입문 비상열림장치 손잡이 위치 및 사용법



1호선 비상열림장치 위치



2호선 비상열림장치 위치



3호선 비상열림장치 위치



4호선 비상열림장치 위치

- 출입문을 비상 개방합니다. (※ 비상시 이외에는 절대 사용금지)

1호선 2호선

출입문 의자 아래 비상열림장치 뚜껑을 밀어 손잡이를 당기고 약 5초 후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 1호선 신형 전동차는 3,4호선과 동일합니다.)

3호선 4호선

출입문 오른쪽 벽면의 비상열림장치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출입문을 좌우로 밀어 엽니다.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



가동도어



비상도어

- 승강장 안전문을 비상 개방합니다.
(※ 비상시 이외에는 절대 사용금지)
- 가동도어(출입문과 함께 동작하는 안전문)는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서 엽니다.
- 비상도어(가동도어의 좌·우에 설치된 비상문)는 빨간색 Bar를 밀고 나갑니다.
- ※ 상기 사용법은 선로측(객실)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개방하는 방법입니다.
- 연기 발생시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가능한 낮은 자세로 숨을 참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선로 대피시 이용한 열차의 선로로 대피하며, 반대편 진행열차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Tip!

화재용 긴급대피마스크

- 위치 : 지하 승강장 중앙 빨간색 보관함
- 사용법 : ① 보관함의 봉인줄을 제거, 문을 열어 마스크를 꺼낸다.
② 방습 포장지를 화살표 방향으로 개봉한다.
③ 마스크의 전면과 안쪽에 고정된 마개를 분리한다.
④ 마스크를 착용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⑤ 얼굴에 맞게 끈을 뒤로 당겨 착용 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대피한다.



Tip!

화재 대피용 물수건

- 위치: 지하 승강장 중앙 빨간색 마스크 보관함 아래 칸
- 사용법: ① 보관함의 봉인줄을 제거, 문을 연다.
② 생수로 수건을 적신다.
③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Tip!

도시철도 안전 체험시설 이용안내

- 노포차량사업소: 051)509-4313
- 호포차량사업소: 055)370-0111
- 부산교통공사 콜센터: 1544-5005
- 부산교통공사홈페이지 <http://www.humetro.busan.kr>



선박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자 밑 또는 선실내에 보관 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행동이 쉽도록 가능한 한 신발을 벗습니다.
- ☑ 구명조끼는 물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 선상에서 입습니다.
- ☑ 가라앉은 배에서 뛰어내린다면 되도록 멀리 뜹니다.

선박 이용객이 하면 안 되는 행위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선박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선박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서 규정 된 화약, 폭발, 탄약 등 폭발물, 고압 가스와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선박사고 대처법

비상구 표지 Emergency exit sign

비 상 탈 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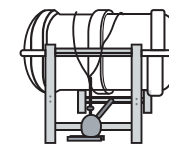
EXIT

탈출경로 표지 Direction signs to your muster station

탈 출 경 로



팽창식 구명뗏목 Inflatable liferaft



팽창 전 (Before Inflation)

수동으로 부양시킬 경우 이탈장치의 단추를 누르거나 레버를 젖히면 탑재대에서 물속으로 떨어져 자동으로 팽창합니다.



팽창 후 (Inflation)

탑승할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뗏목 위로 뛰어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선박사고 대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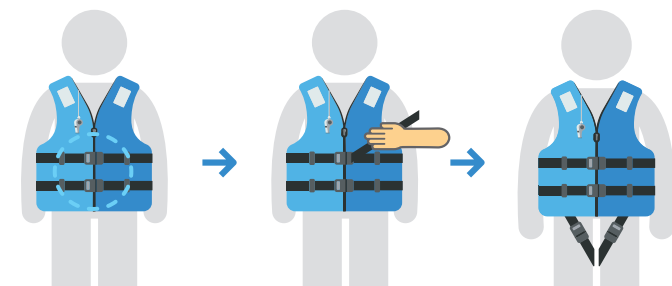
- 구명조끼·구명정 위치 및 배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 선박사고(화재, 좌초, 테러 등)가 발생 시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누릅니다.
- 화재시 우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창문 등을 깨서 환기를 시킵니다.
- 출입문 또는 비상구 등이 열리지 않을 때 선내 도끼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 합니다.
- 선장, 인명구조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탈출합니다.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자 밑 또는 선실내에 보관 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행동이 쉽도록 가능한 한 신발을 벗습니다.
- 구명조끼는 물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 선상에서 입습니다.
 -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몸이 물 위로 뜨기 때문에 배 밖으로 탈출 할 수가 없습니다.
-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린다면 되도록 멀리 뛩니다. (배가 기울어져 슬라이드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 순간적인 진공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흡입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배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 갈 수 있으니 되도록 멀리 뛰어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신발을 벗고 다리를 편 후, 한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한 멀리 뛰어내립니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신속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 합니다.
- 체온저하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구명동의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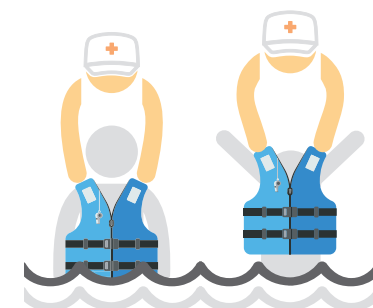
- 1 자신의 신체사이즈에 맞게 구명동의를 선택한다.



- 2 구명조끼 착용 후 가슴 버클을 채운다.
- 3 자신의 몸에 맞게 가슴 조임줄을 당긴다.
- 4 생명줄을 다리사이에 걸어 버클을 채운다.



- 올바른 착용
좌: 자신의 몸에 딱맞음
우: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음
- 생명줄을 걸지 않았을 경우
구조 시, 구명조끼가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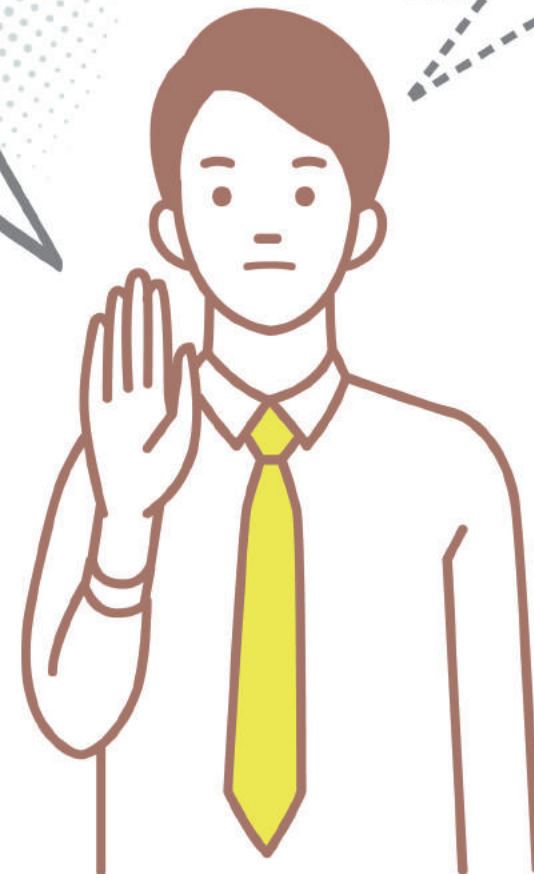


자연재난 안전

미세먼지	54
태풍	59
호우	62
지진	65
해일	68
폭염	70
대설	72
한파	75
산불	77



지진으로 흔들릴땐
건물 담장과 떨어져서
이동합니다!





미세먼지

! 꼭 알아둡시다

미세먼지 높은날 건강 생활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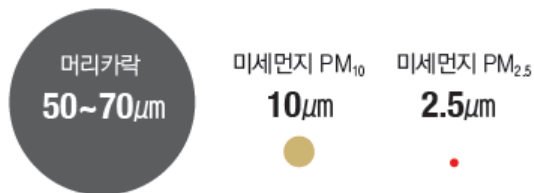
- ☑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 외출시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합니다.
- ☑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합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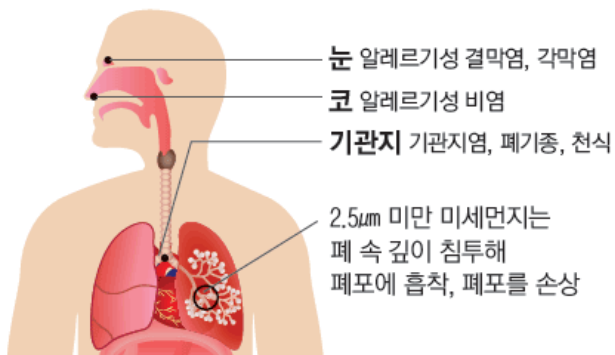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 할 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파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의 상대적 크기 비교

※ μm (마이크로미터) : $\frac{1}{10^6}\text{m}$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예보내용

예보 내용	예보 물질 ($\mu\text{m}/\text{m}^3$)		행동 요령	
	미세먼지 (PM ₁₀)	미세먼지 (PM _{2.5})	민감군	일반인
좋음	0~15	0~15	-	-
보통	31~80	16~35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81~150	36~75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매우 나쁨	151이상	76이상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₁₀과 PM_{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

생활주변 대기오염 줄이기

① 가정내 대기오염 줄이기

- 요리방법 건강하게 바꾸기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제품 사용하기
- 주방후드·에어컨·진공 청소기 필터 자주 청소하기
-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② 친환경 운전하기

- 3급하지 않기
급출발/급가속/급감속
- 공회전 하지 않기
- 친환경 자동차 타기

③ 날림 먼지 예방하기

- 공터에 식물 심기
-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④ 불법 소각 근절하기

- 폐기물 소각 하지 않기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① 미세먼지 경보 기준

구 분	종 류	발령/해제 기준
PM-10	주의보 발령	1시간 평균농도 $150\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주의보 해제	1시간 평균농도 $100\mu\text{m}/\text{m}^3$ 미만
	경보 발령	1시간 평균농도 $300\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해제	1시간 평균농도 $150\mu\text{m}/\text{m}^3$ 미만
PM-2.5	주의보 발령	1시간 평균농도 $75\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주의보 해제	1시간 평균농도 $35\mu\text{m}/\text{m}^3$ 미만
	경보 발령	1시간 평균농도 $150\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해제	1시간 평균농도 $150\mu\text{m}/\text{m}^3$ 미만
황사	경보 발령	1시간 평균농도 $800\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해제	1시간 평균농도 $800\mu\text{m}/\text{m}^3$ 미만

※ '미세먼지 예·경보' ⇨ 환경부, '황사경보' ⇨ 기상청 발표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② 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 생활을 권고합니다.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입니다.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 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합니다.
(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합니다.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합니다.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합니다.

③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 합니다.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합니다.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합니다.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합니다.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합니다.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합니다.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합니다.

※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미세먼지의 정보확인

①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 환경부 실시간 대기오염도측정, 대기질, 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 대기오염도 및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② 기상청 www.kma.go.kr



③ 일기예보,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④ 우리 동네 대기질 어플리케이션

- 현재 지역에 대한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태풍

! 꼭 알아둡시다

-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알아둡니다.
- ✓ 유리창은 깨지지 않도록 X자로 테이프를 붙입니다.
-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 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니다.

특보기준

태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이 오기 전에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 하천 근처에 주차 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한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유리창은 깨지지 않도록 X자로 테이프를 붙입니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 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니다.



태풍이 올 때

① 도시지역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태풍이 올 때

- 저지대 ·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 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② 농촌지역

- 태풍이 왔을 때 경작지 용 · 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 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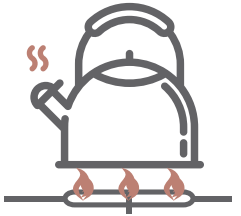
③ 해안지역

- 해안도로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 태풍이 왔을 때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구 · 군청이나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연락합니다.
-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 침수 된 집안은 가스가 차있을 수 있으니 환기 시킨 후 들어갑니다.
- 가스 · 전기(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 확인하고, 한국 가스안전공사(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 공사업체의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 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호우

! 꼭 알아둡시다

-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 둡니다.

특보 기준

호우 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가 예상될 때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사전에 옮깁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말고, 지하에 살고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호우 특보 시 행동요령

① 도시지역

-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구·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알아둡니다.
-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호우 특보 시 행동요령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 둡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② 농촌지역

- 집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니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려 나가는 것은 위험 합니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니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 둡니다.



③ 해안지역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 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니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산사태,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산사태 징후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땅·포장도로·인도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를 때.
- 계단이나 테라스 등과 같은 부속구조물이 떨어지거나 기울 때.
- 수도관이나 땅속에 매설된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될 때.
- 전신주·나무·벽·울타리 등이 기울 때.
- 계곡물의 수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탁해질 때.
- 문이나 창문이 뻑뻑하거나 문설주나 틀이 눈에 띄게 비틀어질 때



② 대처요령

-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책상, 테이블 밑으로 피신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쪽으로 뛰어 대피합니다.
- 바위나 다른 잔해물이 접근해 오면 가까운 나무나 건물이 밀집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탈출이 불가능하면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합니다.
- 산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부상자나 갇힌 사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지진

! 꼭 알아둡시다

- ✓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 **비상시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두고, 응급처치 방법을 반복 훈련하여 익혀둡니다.**
- ✓ **지진이 나면 승강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지진이란

- 지구 내부의 단층 붕괴 등에 의해 지반이 급작스럽게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지진 대비요령

①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 두고 지진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 관리합니다.

② 집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합니다

- 가구나 가전제품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둡니다.
-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 그릇장 안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고정해 둡니다.
-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합니다.
-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합니다.

지진 대비요령

④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 가스,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둡니다.
- 머물고 있는 곳 주위의 넓은 공간 등 대피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둡니다.
- 비상시 가족과 연락 할 방법을 정해 두고, 응급처치 방법을 반복 훈련 하여 익혀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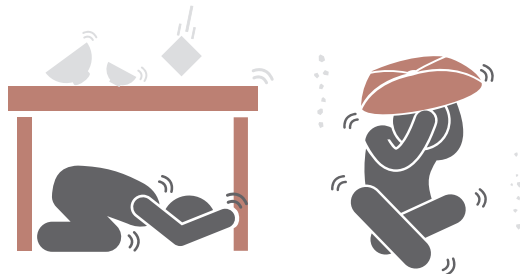
⑤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를 알아 둡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두고, 보관장소와 사용 방법을 알아둡니다.
-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를 준비해두고, 사용방법을 알아둡니다.

지진 발생 중 대처요령

①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②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 출입문을 열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지진 발생 중 대처요령

③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 담장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 집에서 나갈 때는 발을 보호 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 지진이 나면 승강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등을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며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건물 밖에서는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④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는 서서히 차를 세워 멈추고, 라디오 안내 방송 등에 따라 대피합니다.
- 주변에 넓은 공간이 없다면 최근에 지은 내진설계가 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⑤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해일

! 꼭 알아둡시다

- ✓ TV나 라디오를 통한 기상상황이나 해일 경보 등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 ✓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합니다.
- ✓ 지붕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흰 옷가지 등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특보기준

해일 주의보

천문조, 폭풍·저기압 등 복합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
(부산지역의 경우 해수면 높이가 160cm이상 예상될때)

해일 경보

천문조, 폭풍·저기압 등 복합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
(부산지역의 경우 해수면 높이가 210cm이상 예상될때)

해일

- 폭풍 해일은 태풍 때문에 해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진 해일은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해일이 육지에 도달 하는 것입니다.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일 시 대처요령

① 해일의 대비

- TV나 라디오를 통한 기상상황이나 해일 경보 등을 주의깊게 듣습니다.
- 해안 저지대 주민은 대피장소 및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 해안에서 진동을 느꼈을 경우나 지진해일 경보를 들었을 경우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 시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귀항하지 말고 대기 하며, 항구에 있는 선박도 먼 바다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마실 물, 식료품, 손전등, 라디오 등을 준비합니다.
- 현관문턱 등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을 막아둡니다.

대피하세요 /



해일 시 대처요령

- 집 주변 하수구가 흙이나 쓰레기로 막혀있는지 확인하고 제거 합니다.
- 침수에 대비하여 방이나 거실의 중요한 물건은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② 즉시 대피해야 하는 경우

-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합니다.
- 지반의 진동이 있을 때 대피합니다.
- 해일이 밀려들 때 대피합니다.

③ 미처 대피 못 한 경우

-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 지붕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흰 옷가지 등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면 침착하게 문짝이나 스티로폼 상자등을 이용하여 빠져나옵니다.





폭염

! 꼭 알아둡시다

- ☑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부득이 외출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을 휴대합니다.
-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습니다.
-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마십니다.

특보기준

폭염 주의보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대비 준비사항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합니다.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 하세요.

① 가정에서

-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 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폭염대비 준비사항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② 산업 건설현장에서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집니다.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섭취합니다. (알코올, 카페인 있는 음료는 금물)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합니다.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씁니다.





대설

! 꼭 알아둡시다

-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운전 합니다.
-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 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보기준

대설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 될 때

※ 신적설 : 새로 쌓이는 눈의 양

대설이 예상 될 때

- 스노우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니다.
- 자가용 대신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 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니다.



대설이 내릴 때

① 차량운전자는

- 고속도로 진입을 자제하고, 국도 등을 이용합니다.
- 스노우 체인을 설치하고 운행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합니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니 하지 않습니다.
- 차간 안전거리를 넉넉히 두고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니다.



② 보행자는

-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자제합니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합니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가정에서는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낮은 가옥은 안전점검을 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농촌지역에서는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니다.
- ※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집니다.

대설이 내릴 때

- 비닐하우스에 쳐져 있는 차광막 등은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니다.

⑤ 해안지역에서는

- 각종 선박 등을 대피시키고 입출항 통제 및 결박(고정) 조치해야 합니다.
- 수산 등 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 해야 합니다.

대설에 차량이 고립 된 경우

-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안에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 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합니다.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나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 시킵니다.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 차량히터를 작동할 때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둡니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합니다.
- 모두 동시에 잠을 자지 말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잠을 자도록 하여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핍니다.
-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파

! 꼭 알아둡시다

-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조이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특보기준

한파 주의보	10월~4월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3°C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것으로 예상 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C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경보	10월~4월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 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것으로 예상 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C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가 예상 될 때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 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 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한파가 올 때

① 건강관리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조이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찌어서는 안 됩니다.

② 운동 할 때는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운동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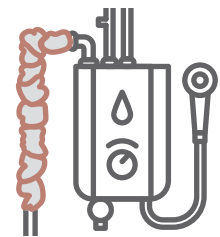
③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관리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 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④ 보일러 배관 관리

- 보일러 밑의 노출 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 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산불

! 꼭 알아둬시다

-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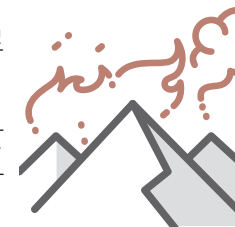
산불예방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산불에 대비합시다

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 산불 발견 시 119, 112, 시·군·구청으로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풍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납니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합니다.
- 산불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탈것이



산불에 대비합시다

적은 곳을 골라 낙엽과 마른풀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주세요.

②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가능성은

-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물을 뿌려주며 가스·기름통, 장작 등을 제거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시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합니다.
-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 가족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합니다.

③ 산불진화에 참여할 때 이렇게 하세요.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삽, 톱, 갈고리 등)와 안전장구(긴 팔 면직옷, 안전모, 안전화)를 준비합니다.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 활동에 참여합니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안내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합니다.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할 때 생기는 크고 작은 불씨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허가없이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며 큰 산불로 번져 끔찍한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 시
실내로 대피했을 경우
모든 문을 닫습니다!



사회기반 체계안전

원자력 안전 82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91



원자력 안전

! 꼭 알아둡시다

- ☑ 방사능(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 방사선 비상시 실내 대피와 소개(피나) 요령을 정확히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 ☑ 구호소에서의 행동과 갑상선방호약품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사성 비상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며, 비상이 발령되면 원자력 발전소, 지자체, 정부의 비상대응조직이 발족하여 방사선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민보호조치 및 긴급복구 등을 취하게 됩니다.
- 영향 범위에 따른 방사선 비상 3종류

백색 비상

방사선의 영향이 원자력 발전소 시설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초기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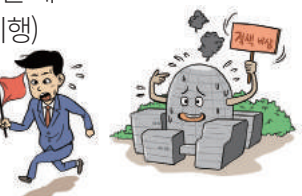
청색 비상

방사선의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민 보호대책 준비)



적색 비상

방사선의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주민 보호조치 시행)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 Emergency Planning Zone)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 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원자력 시설로부터 거리에 따라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

3~5km, 부산 : 5km

(PAZ : Precautionary Action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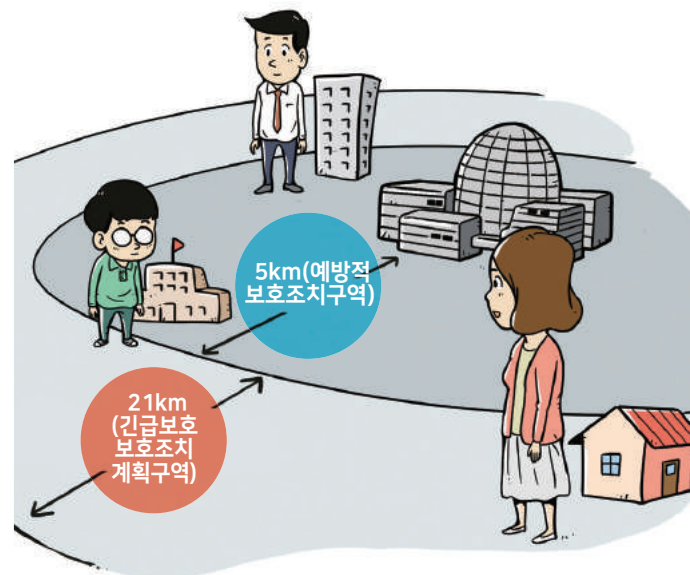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 적으로 즉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km, 부산 : 20~2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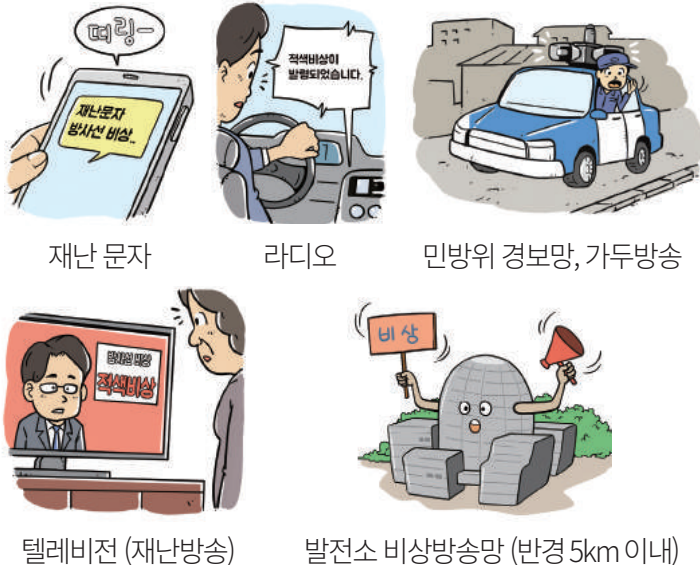
(UPZ :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실내 대피 후 방송 등 안내에 따라 행동(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방사성 비상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이때 방송 매체(민방위경보망, 텔레비전, 라디오, 원자력발전소 비상방송망, 차량 거리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실내 대피

- "실내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신속히 집으로 돌아가 창문 및 장독대 등을 꼭 닫고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을 하고 에어컨이나 환풍기를 끄고 밖에 있었다면 손과 얼굴을 씻거나 샤워를 합니다. 집이 멀 경우 가까운 건물(공공건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구호소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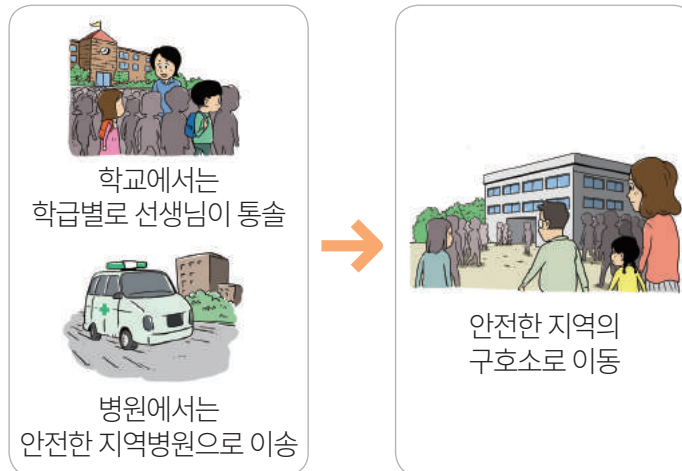
- "구호소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간단한 필수용품만 준비하여 이재민구호거점센터나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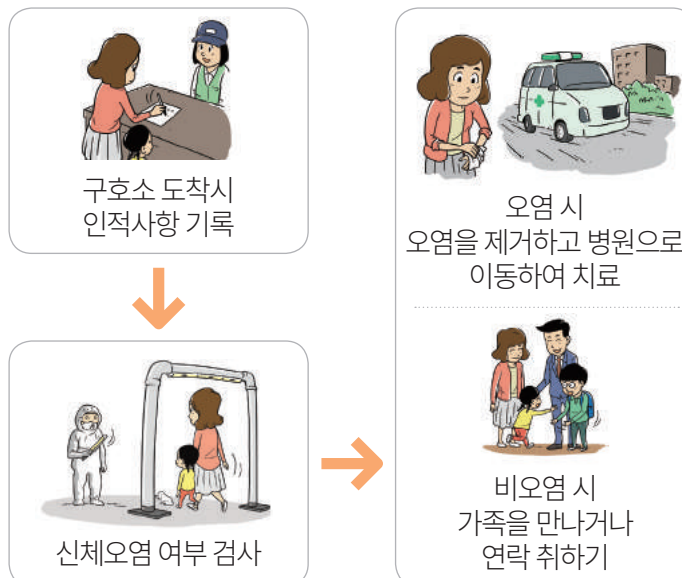
- 구호소로 이동하는 방법
 - ①차량이 있을 경우 자가차량을 이용.
 - ②차가 없을 경우 동원된 임시 긴급 열차, 버스 등을 활용, 통제된 소개(피난)
- 주의사항
 - ①구호소에 갈 때는 기본적인 장비와 복용 중인 약품, 귀중품 등만 챙겨주세요. 예) 복용 중인 약품, 비상약, 라디오, 손전등, 현금, 비상식량, 갈아입을 옷, 휴대폰(충전기) 등
 - ②자가차량이 없는 경우 통·리 별 집결지로 이동, 통·리 반장 등의 안내에 따라 동원된 버스, 기차로 구호소까지 이동하세요.

구호소 대피

-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소개(피난)시키기 때문에 찾으러 가실 필요 없이 구호소로 바로 가시면 가족을 만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입원 중인 환자들을 방사선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환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므로 데리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구호소에 가시면 즉시 인적사항을 기록하시고 신체오염 여부를 검사 후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오염시에는 오염을 제거 하시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받습니다. 비오염시에는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

- 갑상선방호약품(옥소제)은 방사성 옥소가 갑상선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감소시키는 약품입니다.
- ※ 복용기준 : 100mGy(갑상선 흡수선량)
- ※ 보관 및 배포 : 해당 지자체에서 보관 및 배포, 복용 지시
- ※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 시설별 자체보관



1 복용시기

- 거주지 읍, 면, 동에서 갑상선 방호약품이 배부되고 복용 안내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2 복용방법

① 복용량

-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130mg(1정)
- 소아(만 3세~만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65mg(1/2정)
- 유아 및 영아(1개월 ~ 만 3세) : 1일 1회, 1회 32.5mg(1/4정)
- 신생아(1개월 미만) : 1일 1회, 1회 16.25mg(1/8정)

② 주의사항

- 지시된 복용량만 복용하세요.
- 아래의 질환자는 복용 전 의사와 상의하세요. 요오드 과민반응자 / 갑상선 질환자(현재 또는 과거) / 포진성 피부염.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3 방호율

- 피폭전 6시간 ~ 피폭후 15분 내 복용시 95%이상 방호 (원전의 사고 상황과 방사선 확산 시뮬레이션에 근거, 최적의 방호를 가지는 시점에 복용토록 권고)

방사선 안전정보 확인방법

① 실시간 환경방사선 현황

- 부산시 34개, 정부 8개, 한수원 12개 총 54개의 실시간 방사선 감시망이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식품, 상수도, 공기, 강수, 토양, 해수 등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매월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방사선량 변동범위 : 0.05~0.3μSv/h



부산광역시 환경방사선안전정보 페이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 분야 → 안전 → 원자력안전
<http://www.busan.go.kr/safety/abenviradiation>

② 스마트폰 활용 방사선 안전정보 확인

안전디딤돌

정부대표 재난안전 포털앱으로 재난발생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

우리나라 전역의 실시간 환경방사능 수치와 안전도를 제공하고 환경방사선/능에 대한 국민안심과 원자력 안전의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

- 방사선 비상 발령 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훈련이 실시됩니다.



백색 비상

예비현장지휘센터, 초기 대응본부 발족·운영



청색 비상

정부와 지자체 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발족·운영, 주민 보호조치 준비



적색 비상

주민보호조치이행, 원자력발전소 비상 대응 및 사고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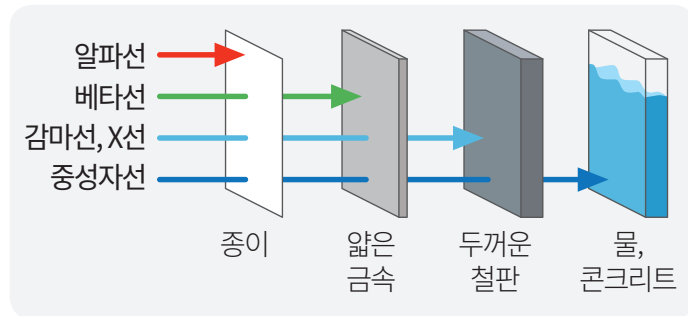
- 훈련 종류별 주관기관에 따라 실시됩니다.

- **연합훈련**: 정부주관, 1년1회(원자력발전소 소재지별로 순환), 종합훈련
- **합동훈련**: 지자체 주관, 2년 1회, 종합훈련
- **주민보호집중훈련**: 지자체주관, 1년 1회, 분야별 집중훈련
- **환경방사선탐지훈련**: 부산광역시만의 특화된 훈련으로 반기 1회, 시 전역 환경방사선 탐지



방사능과 방사선

- 핵연료로 쓰이는 우라늄 등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 즉 방사성물질입니다
- 방사능 :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 방사선 :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물체를 통과하는 투과력이 있습니다.
-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투과력도 달라집니다. 전구가 빛을 내보내는 듯이 어떤 물질은 "방사선"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방사성물질"이라고 합니다.



- 시시버트(Sv)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피폭선량)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방사선량은 연평균 3.0mSv(밀리시버트)입니다.

방사선은 지구, 우주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방사선에 노출되고, 흡입하고, 먹고 그리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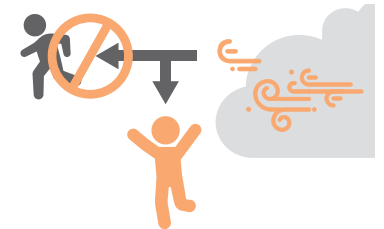
유해 화학물질 사고예방

! 꼭 알아둬시다

- ✓ 대피할 때 가급적 고층건물 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 ✓ 만약,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옷 등은 비닐 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대처

- 대피 할 때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 해야 합니다.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높은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 (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Tip!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정보 제공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http://icis.me.go.kr>)에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은
특히 조심합니다!



범죄 안전

학교폭력 예방	94
성폭력 예방	96
학대 예방	97



학교폭력 예방

! 꼭 알아둡시다

- ✓ 학교폭력이 유발될 수 있는 우범지역 등을 가급적 피합니다.
-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은 신속히 교사, 학부모, 117 등에 학교 폭력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① 학생의 대처 방법

- 단체 활동 참여와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 운동·놀이 등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특기를 찾아봅니다.
- 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만한 장소와 신고 전화번호 등을 알아둡니다.
-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담임선생님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 확실한 거부의사(안돼, 싫어) 표시 등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히 합니다.
- 외출 시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장소·귀가시간 등을 사전에 알립니다.
- 인적이 드문 길은 특히 조심합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지역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② 부모의 대처 방법

-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 길로 등·하교 하도록 합니다.
- 싫은 것은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 다양한 취미활동과 그룹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모른척 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키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 자녀의 물건에 모두 이름을 새겨둡니다.
- ※ 물건에 이름을 새겨두면 분실·도난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 위협을 받는 경우 물건을 포기하고, 바로 어른에게 알리도록 지도하세요.
- 피해 학생 부모는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 하에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와 학교 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성폭력 예방

! 꼭 알아둡시다

- ☑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성적인 접촉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 피해시 도움 요청방법 등 성폭력 피해시 도움 요청방법 등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알아둡니다.
- ☑ 가능하면 빨리 경찰 등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기관에 찾아가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성폭력이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

성폭력 예방

-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성적인 접촉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평소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분명히 표현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 성폭력 피해시 도움 요청방법 등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알아둡니다.



성폭력 피해상황 대처

- 성폭력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성폭력을 했는지 등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빨리 경찰 등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기관에 찾아가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입었던 옷, 소지품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합니다.
-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 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부모님이 다독겨려 주어야 합니다.



학대 예방

! 꼭 알아둡시다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 신고의무자 외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입니다. (아이지킴이112 어플로도 신고 가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의 범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교사 직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및 강사
 - 아이돌봄지원법 상의 아이돌보미
 -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



- 의료인 직군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중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의무 불이행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0만원	200만원	500만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 아동학대처벌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 신문이나 TV 등의 보도를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경우
- 수사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말하거나 언론에 누설하는 경우 등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수사기관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하거나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①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
- 아동학대 의심사항 확인
- 응급상황시 아동안전 우선확보
(예: 긴박한 상황의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 신고)

②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
-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

③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 전달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①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②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 특정물건을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③ 성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걸거나 앉는데 어려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흉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성병 감염 및 임신

④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예방접종과 치료 불이행, 건강 상태 불량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도벽 등의 비행행동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	×
14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	×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 1개 문항 이상 '○'로 체크 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씻습니다!

보건 안전

불량식품 안전관리	104
감염병 예방	106
가축전염병 예방	108
자살예방	11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111
심폐소생술	113





불량식품 안전관리

! 꼭 알아둡시다

- ✓ 식품 구입시 제조업소명 · 소재지 · 유통기한 등의 한글 표시 사항과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 식품을 바닥에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판매하는 것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 ✓ 손은 30초 이상 비누로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음식은 중심부 온도 75°C(어패류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물은 끓여 마시도록 하여 식중독을 예방 합니다.

불량식품

① 불량식품

-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합니다.
- 부패 · 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 허위·과대광고, 가짜 식품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② 불량식품 판매유형

-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행위
-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행위
- 정식으로 인 ·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
-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행위
-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불량식품 식별방법

유형	식별방법
무허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음(제조업소명, 소재지 등) - 등록 또는 특허 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임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은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불량식품 식별방법

유형	식별방법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포장지의 원 제조일자 위에 스티커 등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다시 부착
유해물질 사용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옴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된 제품 - 부패, 변질, 변색된 제품 - 불결하거나 광물성 등의 이물질이 유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 식품 허가기관 이외의 관청명, 단체명, 외국명 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특정질병의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표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일반 위생관리

- ① 깨끗한 손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 ②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③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 ④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합니다.
- ⑤ 의심되는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⑥ 계절별 우려식품 사용을 자제합니다.





감염병 예방

! 꼭 알아둬시다

- ✓ 음식은 익혀먹고 식수는 끓인물을 마십니다.
-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 올바른 손씻기는 다양한 설사성질환 및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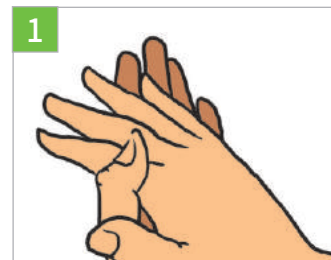
- 평소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씻습니다.
- 식수는 반드시 끓인 물이나 생수를 마십니다.
- 채소류 등은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합니다.
-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어 말려 사용합니다.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손수건 등을 이용 입가리기 등 에티켓을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 합니다.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 등 실내는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합니다.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때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특히,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산부, 만성 질환자 등)의 경우 즉시 진료 권고
- 해외 귀국시 발열, 호흡기 이상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

올바른 손씻기



1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2
손가락 등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줍니다.



3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4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줍니다.



6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 꼭 알아둡시다

- ✓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 ✓ 죽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과의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구·군청으로 신고합니다.

AI란?

AI(avian influenza :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오리·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AI 인체감염 예방법

-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방문을 자제합니다.
- 주인이 없는 새(조류), 고양이, 개 등 야생동물을 만지고 쓰다듬지 않습니다.
- 죽은 동물(새, 고양이, 개)은 만지지 않습니다.
-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닭, 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 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합니다.
- 야생동물을 만졌거나 들판, 산 등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 기침이나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나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AI 인체감염 예방법

-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 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합니다.
- AI 발생국가로의 해외여행을 자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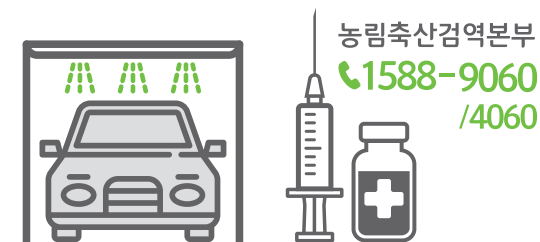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코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구제역 예방법과 확산방지 수칙

- 구제역은 축산농가에서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차량)은 반드시 소독해야 하므로,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 구제역 발생국가로의 해외여행을 자제합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신고합니다.
- 구제역 발생이 의심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4060)로 신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4060



자살 예방

! 꼭 알아둡시다

- ✓ 자살사이트 검색 등 자살방법에 관심을 가지거나 죽겠다는 이야기, 자기비하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고하지 말고, 힘든 감정을 공감해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 줍니다.

자살 위험징후

① 언어·행동적 신호

- 죽겠다는 이야기, 자기 비하적인 이야기의 직접적 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SNS 등을 통해 자살언급
- 유서작성, 자살사이트 검색 등 자살방법에 관심을 가짐
- 갑작스런 식욕 저하, 수면 부족 등 신체적 변화 호소

② 상황적 신호

- 만성질환, 우울증(불안, 집중력 저하 등)과 관련된 증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회적 고립
- 가족이나 주변사람의 사망이나 이별

돕는방법

-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 자살 생각 및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 충고하지 말고, 힘든 감정을 공감해줍니다.
-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 자살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자살예방 전문가를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Tip!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센터 ☎ 051-242-2575 (09:00~18:00)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 1577-0199 (24시간 상담가능)
 자살예방 상담 ☎ 1393 (24시간 상담가능)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 꼭 알아둡시다

- ✓ 특별한 목적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습니다.
- ✓ 스마트폰을 필요할때만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점수합계				

- 채점방법 : ① → 1점, ② → 2점, ③ → 3점, ④ → 4점
- 고위험 사용자군 : 총점 31점 이상
-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 총점 23~30점 이하
- 일반 사용자군 : 총점 22점 이하

바른 인터넷 사용지침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습니다.
- 컴퓨터 사용시간을 가족들과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 컴퓨터 옆에 알람시계를 두어 사용시간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 사용 이외에 운동이나 취미활동 시간을 늘립니다.
- 인터넷 때문에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지침

- 스마트폰은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이용 시 바른 말을 사용합니다.
- 수업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지 않습니다.
-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동의를 받습니다.
- 부모님께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이나 잦은 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절제 있고 계획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요금을 절약합니다.
- 성인음란물 및 불건전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Tip!

부산정보문화센터(부산스마트쉼센터) 안내

- 상담방법 : 전화, 내방,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 상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 ※ 상담내용, 심리검사 결과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 ※ 모든 상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부산정보문화센터 : 051)744-7755 / www.busanicc.or.kr
- 전국상담대표전화 : 1599-0075 (스마트쉼센터)



심폐 소생술

! 꼭 알아둬시다

- ✓ 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으로 혈액을 순환 시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 ✓ 심폐소생술의 순서 : 흉부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 흉부압박대 인공호흡 비율 = 30회 : 2회
 - 환자가 움직일 때 까지 또는 119가 도착할 때 까지 심폐소생술을 반복 시행합니다.

심폐소생술 이란?

- 1 심폐소생술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으로 혈액을 순환 시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2 심폐소생술 구성도

- 심폐소생술의 순서 : 흉부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 흉부압박대 인공호흡 비율 = 30회 : 2회
 - 환자가 움직일 때 까지 또는 119가 도착할 때 까지 심폐소생술을 반복 시행합니다.

생존사슬을 이어 주세요



1 첫번째 사슬 : 심정지 예방과 조기발견

- 일단 심정지가 발생되면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누구나 심정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정지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두번째 사슬 : 신속한 신고

- 심정지를 인지한 목격자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음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생존사슬을 이어주세요

③ 세번째 사슬 : 신속한 심폐소생술

-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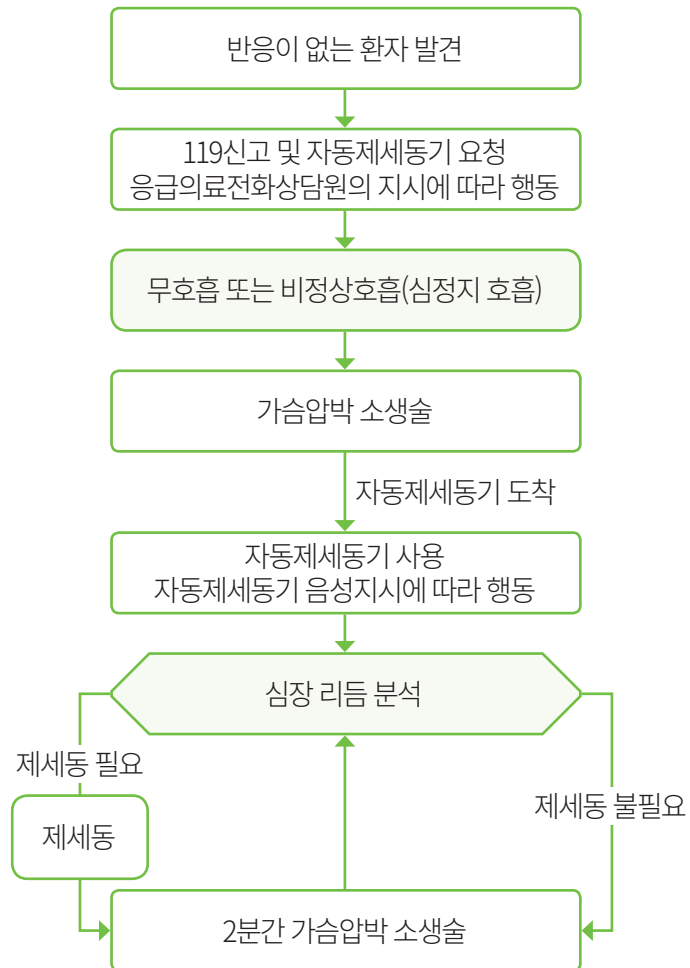
④ 네번째 사슬 : 신속한 제세동

-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심장충격(제세동) 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⑤ 다섯번째 사슬 : 효과적 전문소생술 및 심정지 후 치료

- 심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에는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기본소생술 순서



심폐소생술



① 환자의 반응 확인

-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② 119 신고

-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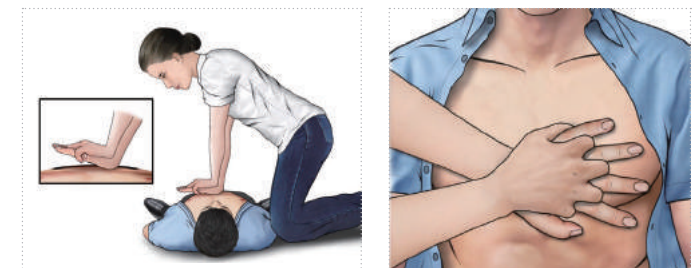
③ 호흡 확인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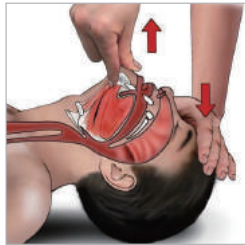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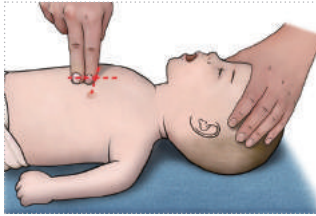


④ 가슴압박 30회 시행

-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 압박깊이 : 성인은 약 5cm, 소아는 4~5cm(가슴 두께의 최소 1/3 이상), 영아는 4cm(가슴 두께의 최소 1/3 이상)
- '하나, 둘, 셋', ... '서른' 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 압박위치(영아): 양쪽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에 두 손가락을 위치하여 눌러주세요
- 압박위치(소아): 연령에 따라 한손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의 경우)
- 명치를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5 기도개방

-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6 인공호흡 2회 시행

-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습니다.
-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합니다.



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8 회복자세

-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1 자동심장충격기 켜기

- 자동심장충격기를 켭니다.(자동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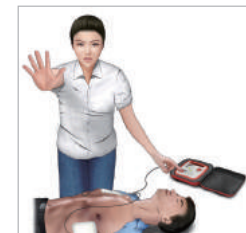
2 두 개의 패드 부착

-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두 개의 패드 중 한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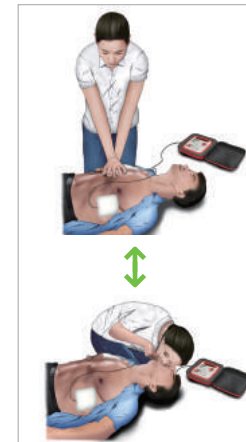
3 심장리듬 분석

-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4 심장충격 실시

- ①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가 스스로 충전합니다.
- ② 충전 완료 후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 후에 심장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을 시행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지시가 나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 이미지 및 내용 출처: 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



비상시를 대비해서
대피시간이 짧은
대피소를 찾아드립니다!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전쟁발발전	120
전쟁발발시	124



전쟁 발발전

! 꼭 알아둡시다

- ☑ 비상시는 도시철도역, 지하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지하시설로 대피합니다.
-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로 비상시 대피소를 찾아보시고 사전에 직접 찾아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전시에는 생활필수품, 가정용 비상약품 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화생방전에 대비한 물자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비상시 대피소 찾아보기

정부는 적 포격, 공습 등을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만 4천 여개의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이런곳이 비상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철도역, 지하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시판이 부착 되어 있는 지하시설



②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로 비상시 대피소를 찾아보세요

- 앱초기화면에서 1.시설정보 → 2.민방공대피소



③ 사전에 '발'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최대한 대피시간이 짧은 대피소 찾기
- 이동경로에 대형유리, 간판 등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
- 어린이에게는 대피소 약도를 만들어 주고 주기적으로 교육

전시 필요한 물자 준비하기

① 비상시 생활필수품은 충분히 준비해 둡니다

- 식량 : 가급적 조리과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통조림 등 (30일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음식물은 조리가 간단한 것으로 준비하되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교체
- 정전 등을 대비해 라디오의 배터리는 여유있게 준비

② 가정용 비상약품을 준비합니다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의약품, 소염제 등
- 의약품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의약품은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노약자·환자 등에게 맞는 의약품 및 최신처방전 준비

③ 화생방전에 대비한 물자도 준비합니다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보호 옷 또는 비닐 옷, 우의
-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
- 방독면 등 화생방전 대비 전용물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물자로 준비

기본장비	대체장비 물자	물자 활용방법
방독면	손수건	손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 보호
	비닐봉투	비닐봉투를 쓰고 허리를 묶어 외부 공기유입 차단 (비닐봉투 속의 남은 산소를 감안 이동)

전시 필요한 물자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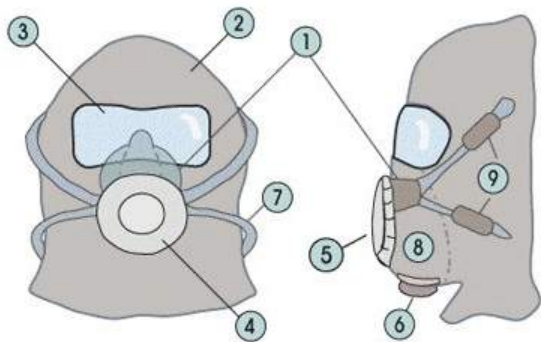
기본장비	대체장비 물자	물자 활용방법
방독면	마스크, 휴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지 등을 몇 겹 접고 물에 적셔서 코, 입을 막고 응급조치
보호의 보호두건	비닐우의 방수 의류 등	우의를 머리까지 덮어쓰고 허리띠로 허리를 꼭 묶어 외부 오염공기의 유입 차단
방독 장갑·장화	고무용품	고무장갑·장화를 착용하여 피부노출 방지



④ 신분 증명, 재산관련 서류 사본도 준비합니다

- 신분증 사본,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명찰(이름, 생년월일, 부모성명 및 연락처)을 미리 만들어 준비.
- 계약서, 보험증서 등 중요서류 사본도 별도로 준비.

방독면 부품설명



- ① 안면부 ② 두건 ③ 안경 ④ 정화통집 ⑤정화통집덮개
⑥ 배기변 뭉치 ⑦ 줄림끈 ⑧줄림끈 거리 ⑨ 줄림끈 지지대

방독면 착용방법



호흡을 멈추고 휴대주머니의 덮개를 열어
방독면을 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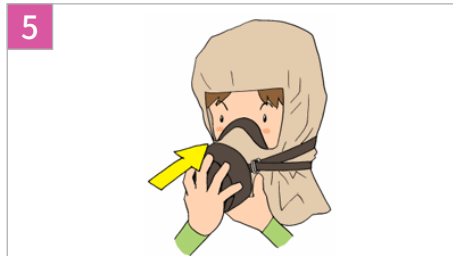
정화통 고정캡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해 낸다.



휴대주머니내 안쪽 속주머니에서 밀봉포장된
전쟁용 정화통을 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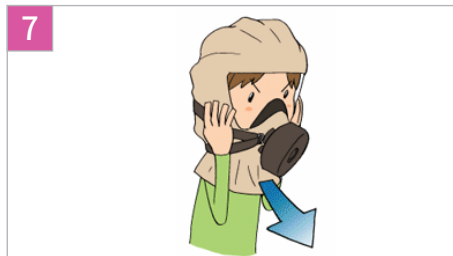
밀봉포장지의 절개 부위를 따라 절개한 후
정화통을 꺼내 정화통 둘레띠에 표시된
화살 표시 방향으로 연결한다.



두건을 쓰고 안면부의 고무면체가 코와 입,
턱에 밀착되게 착용한다.



방독면을 얼굴 중앙에 바로 놓이게 조정하고
머리끈을 조인다.



안면부 내부의 잔류가스를 혹 불어서 밖으로
배출시킨다.



손바닥으로 정화통의 흡입구를 막고 숨을
들이쉬어 공기가 흡입되지 않아야 한다.

※ 만약 공기가 흡입되면 3~5의 순서를 반복 실시한다.



전쟁 발발시

! 꼭 알아둡시다

- ✓ **민방공 경보(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발령시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주시고, 정부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 **전쟁 발발시**는 집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체없이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고 정부통제에 적극 협조합니다.
- ✓ **적의 포격 도발 시**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폭발 화재 및 파편에 주의하여 대피소로 이동하고, 건물 잔해에 갇히면 무리하지 말고 구조를 요청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민방공 경보발령시 행동요령



①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 될 때

- 즉시 대피 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 비상대비 물자 점검 및 가스와 전원 차단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 장비 점검
-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전달 및 대피 안내

②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임박 하거나 진행 중일 때

- 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
-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 안내
- 운행 차량은 공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 후 대피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대피
-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부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민방공 경보발령시 행동요령

③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방독면, 마스크, 손수건, 보호의 등으로 호흡기와 몸을 감싸 보호
- 화학무기 공격
 - 실외 : 고지대나 고층건물로 대피
 - 실내 : 문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 차단
- 생물학무기 공격
 - 음식과 물은 끓여서 섭취
 - 애완동물에 의한 전염 주의
- 핵무기 공격
 -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음

④ 경보해제 : 적의 공격징후 및 추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부상자 구조활동, 헌혈 등에 동참
- 오염시설과 장비는 비눗물이나 세제를 이용해 세척
- 재차 공습에 대비해 정부 안내방송 계속 청취

전시 일반 행동요령

① 집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송(TV, 라디오)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비상대비 물자를 점검하고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원차단
- 단수/단전/가스공급 중단을 대비한 물자 준비
- 필요시 정부의 안내에 따라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사용은 자제 · 정전 등을 대비해 라디오의 배터리는 여유있게 준비

② 대피령이 발령되면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 준비해 둔 비상대비 물자를 가지고 신속히 대피

전시 일반 행동요령

-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 대피 유도
- 운행중인 차량은 공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 후 대피
- 대피한 뒤에도 정부의 방송을 들으며 안내에 따라 행동

③ 전시 동원 및 피해 복구에 모두 동참합니다

-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인력·물자 동원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지체없이 응소
- 헌혈, 부상자 진료, 전재민 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 동참

④ 정부 통제에 적극 협조합니다

- 군사작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차량 및 주민 이동 통제에 우선 협조
-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말고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하면 적극 협조

적의 포격도발 시 행동요령

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소로 대피합니다

- 아파트, 고층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소로 이동
- 운전 중에는 차량을 도로 우측이나 공터에 정차(키는 꽂아두고) 하고 대피
- 대피소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 도랑, 움푹파인 곳 등에 최대한 엎드려 몸을 숨김
- ※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이 대피소로 지정

② 폭발 화재 및 파편에 주의합니다

-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않도록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
- 벽돌 잔해 등 파편과 대형 가구 및 가전제품이 쓰러지는 것에 주의

③ 건물 잔해에 갇히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 무리하게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 유지
- 휴대폰 발신음 또는 파이프, 잔해 등을 두드려 주기적으로 구조 신호
- 누출 가스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어 성냥, 라이터 등 사용 자제

적의 포격도발 시 행동요령

④ 대피 이후 가족, 이웃과 함께 행동합니다

- 현재의 감정상태를 솔직히 이야기 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행동
- 어린이, 노약자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긍정적이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화생방 공격 시 행동요령

① 화학무기 공격시

- 방독면 또는 마스크 등 착용 후, 고지대나 고층건물 실내로 대피
- 출입문, 창문, 환풍기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폐
- 오염된 신체부위는 비누, 세제로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고, 오염된 옷은 비닐봉지에 밀봉

② 생물학무기 공격시

- 오염물질 및 환자와는 접촉 금지, 방독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 후 신속히 대피
- 정부 안내에 따라 감염여부 확인 및 예방접종 등 치료
- 음식과 물은 끓여서 섭취하며 몸과 생활공간의 청결 유지

③ 핵무기 공격시

- 신속히 지하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 핵폭발 섬광을 느끼면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리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입을 벌림
- 핵폭발 이후 방사능 낙진 지역에서 대피하고 비닐, 우의 등으로 신체 노출을 최소화



매월 4일은
생활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생활에 유익한 안전정보

생활에 유익한 안전정보	130
안전체험시설	132
안전점검표	133



안전 신문고란 무엇인가요?

안전신문고

주변생활속에서 발견하는 **위험요소**를 **국민스스로 신고**하여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웹(web)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앱(app)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 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안전사고 경보, 재난대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 재난유형 및 지진 대응방법, 풍수해 보험 등 안내.



부산 공식 블로그 쿨부산 안전하이소

blog.busan.go.kr

부산시 공식블로그 쿨부산 안전하이소에서 생활안전사고 예방법 등 안전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이버 포스트 안전하이소

post.naver.com(안전하이소)

부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 안전혁신과 공식 네이버 포스트 안전하이소입니다.



유튜브 안전하이소

www.youtube.com(안전하이소)

부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 안전혁신과 공식 유튜브 채널 안전하이소입니다.

※ 유튜브에서 '안전하이소'를 검색하세요.



| 부산시 안전체험시설 현황

시설명	주소	대표전화
부산진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부산진구 성지곡로 33번길 29-48	051-818-3434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	북구 낙동북로 687	051-309-4805
부산진구 생활안전체험관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62 (전포동, 청소년문화의 집 2층) 항령산 레포츠공원 입구	051-605-4645
금정구 안전체험관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본관 지하3층 (부곡동, 금정구청)	051-519-4655
스포원 어린이 교통나라(금정구)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두구동)	051-550-1428
호포차량사업소 안전체험장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호포새동네길 5	055-370-0111
노포/호포 전동차 안전체험장	경남 양산시 동면 호포새동네길5 노포차량사업소	051-509-4313
해운대구 민방위체험장	해운대구 재반로 184번길 31	051-749-6166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장	해운대구 재반로 184번길 31 (민방위체험장 2층)	051-782-8455
연제구 포돌이교통나라	연제구 중앙대로 999(경찰청 내)	051-899-2451
해운대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해운대구 센텀동로 50	051-760-4693
금정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동래구 반송로 331 서동 119 안전센터 4층	051-760-4744
기장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7	051-760-5142
항만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영도구 태종로 115	051-760-4943
중부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중구 중앙대로 110	051-760-4144
강서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강서구 녹산산단 361로 9	051-760-5043
사하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사하구 장평로 270	051-760-4592
남부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수영구 광일로 64	051-760-4845
동래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연제구 고분로 216	051-760-4345
부산119안전체험관	동래구 우장춘로 117(온천동 330)	051-760-5832

| 우리집 안전 점검표

분야	점검항목	점검확인		
		양호	불량	이상 시 접수처
화재 예방	· 위험성이 있는 물질 등의 방치 유무			국번없이 119 (소방서)
	· 가정용 소화기 비치, 확인 및 소화전 작동 요령 숙지는 하였는가?			
	· 동절기 난로 사용시 안전 조치			
	· 점화상태에서 주유는 하지 않는가?			
	· 평평한 바닥에서 주유를 하는가?			
전기 사고 예방	· 인화물질이 가까이 있지는 않는가?			전기안전공사 또는 120만원 기동대
	· 전깃줄이 낡은 곳은 없는가?			
	· 집을 모두 비울 때는 각종 코드를 뽑아 두는가?			
	·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만지지는 않는가?			
가스 폭발 예방	· 1개의 콘센트에 전기 전열 기구에 문어발 식 접속을 하지 않는가?			가스공급업소
	· 중간밸브는 완전히 잠겨 있는가?			
	· 가스통은 안전한 곳에 설치 되어 있는가?			
	· 가스통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부분은 주 1회 이상 비눗물을 발라 확인하는가?			
기타 사고 예방	· 가스폭발의 위험성 및 폭발 방지에 관한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국번없이 119 (소방서)
	·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유해물질 (성냥, 라이터, 칼, 약품 등)을 방치하지 않았는가?			
	· 선풍기에 안전망은 설치 하였는가?			
	·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는 않았는가?			
	·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 조치를 하였는가?			

매월 4일은 생활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뒷면의 안전 점검표를 인쇄하시어 매달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불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

| 우리집 안전 점검표

점검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열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빼어 놓습니까?												
전기콘센트 한개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습니까?												
집안의 전선 중 꺾질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곳이 없습니까?												
프로판 가스통은 안전한 곳에 놓고 쓰십니까?												
가스를 쓰고 나면 중간 밸브를 정확히 잠그고 있습니까?												
석유난로나 곤로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사용하십니까?												
석유난로나 곤로에 기름을 넣을 때 반드시 소화 후에 하십니까?												
기름(석유) 등 연료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외출할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열기구 등을 점검하십니까?												
집에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화기 사용법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습니까?												

기획

김종경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장)

추창식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 안전혁신과장)

강혜영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 안전문화팀장)

유지영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 안전혁신과 주무관)

검토(가나다순)

곽혜리 (부산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대리)

김현재 (부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주무관)

박설숙 (부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손상현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지방소방교)

신용욱 (부산광역시 산림녹지와 주무관)

이희영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주무관)

장태현 (소방안전본부 특수구조단 지방소방교)

조철우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과 주무관)

황영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발행일 : 2019년 4월

발행처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 안전혁신과 (051-888-2891)

인 쇄 : 코아앤 (051-744-6173)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접속
→ 분야별 정보 → 안전 → 재해/재난 → 시민행동요령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안전처홈페이지 www.mpss.go.kr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